
민선 6기 전라남도지사 「공약이행주민평가단」
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결과

2015. 4.

민선 6기 전라남도지사 「공약이행주민평가단」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결과

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보고회 개최에 따른
결과정리 및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함

I | 보고서 개요

- 일시/장소 : 2015. 3. 30.(월) 14:00 ~ 16:30 / 서재필실
 - 참석 : 50명(주민평가단 24, 관계 공무원 26)
 - 주요내용
 - 민선 6기 공약 추진상황 및 변경 공약사업(2건)* 보고
 - 도민평가단 운영계획 보고, 주민평가단 검토 및 의견제시 등
- * 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비용 자부담 비율 인하(20 → 10%),
②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(신용보증상품 개발로 대체)

II | 평가위원 주요 의견

□ 전반적인 분야

- (정용태 위원) 전남도에서 공약이나 정책들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전 도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/ 전 실과소
 - 예를 들어 청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지역별 순회를 통해 홍보는 물론 도민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될 것임
- (김창훈 위원) 공약들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 후에 운영 방법과 추진된 사업이 공약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함. 아울러 공약이 지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고려 / 전 실과소

▶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

□ 지역경제 분야

- (김농오 위원)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시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/ 에너지산업과
 - ▶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상풍력, 조류발전 등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. 앞으로도 우려하신 친환경적인면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로 검토해 나가겠음.

□ 농·축·어업 분야

- (장재호 위원) 논농업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간 차이가 심함. 밭농업 직불금을 최소한 논농업 수준으로 상승시켜 주기 바람 / 친환경농업과
 - ▶ 직불금 문제는 FTA 대응차원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음

□ 관광·문화 분야

- (장재호 위원) 남도한바퀴가 현재는 도에서 투어 일정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, 해당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외지인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직접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함 / 관광과
- (김농오 위원) 숲 속의 전남, 가고 싶은 섬이 다른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함 / 관광과
- (김농오·김창훈 위원)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접근 / 관광과
 -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했으면 함
 -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우리 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
 - ▶ 내륙권 중국인들을 집중 공략 골프팸투어 등 주제를 다양화하여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 거리상 제약으로 단기간 효과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

- (김농오 위원) 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열리는데 관광자원(숲속의 전남 등 친환경적 자원과 농업박람회, 대나무박람회, 순천정원박람회 등)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함 / 관광과
 - ▶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장과 친환경 관련 관광자원들을 연계해서 패키지상품화 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음
- (최경필 위원) 지역민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민 주도의 축제를 개발하고 지원했으면 함. 도에서 축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적인 지원과 도의 홍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을 검토 / 관광과
 - ▶ 주민 주도의 축제 등 소득을 창출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
 - 농림부에서 농촌마을 소규모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음
- (임영규 위원)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변적이고 순환적인 콘텐츠를 전시했으면 함. 아울러 도가 주체가 되어 콘텐츠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공간이 더 필요함 / 문화예술과
 - 예를 들어 전남 문화의 현 주소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전시 등
 - ▶ 광주시, 문화전당 등과 주기적으로 열리는 공동협의회에서 논의하고, 좋은 콘텐츠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
- (임영규 위원) 강진청자박물관 국립으로의 전환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. 중앙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, 운영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강진군이 참여할 수 없게 됨. 전환 가능성이 낮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/ 문화예술과
 - ▶ 명칭도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강진 청자요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도 연계하는 등 국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음

□ 지역개발 분야

- (정용태 위원) 버스공영제 운영 시 안전을 위해 '버스안내원'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함 / 도로교통과
- (김농오 위원) 빛가람혁신도시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나누시는 물론 화순, 함평 등 인접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/ 혁신도시건설지원단
- (김농오 위원) 목포신항 개발 시 친수공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했으면 함 / 해양항만과

□ 도민복지 분야

- (정용태 위원) 우리 사회에 안전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됨. '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' 공약에서 산후조리원 인력 중 응급 구조사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/ 사회복지과
- (최경필 위원)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경로당은 빛(태양광)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있음. 현장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함 / 노인장애인과
- (최경필 위원)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함 / 노인장애인과

Ⅲ

행정사항

-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실천계획에 따라 민선 6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서 도 홈페이지에 탑재(정책기획관실) : 4. 17.까지
- 보고회 시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제출(해당 실·과) : 4. 20.까지

분야별	주요의견	후속 조치상황(계획)

※ 후속 조치상황(계획)은 금년 하반기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정기회의 시 평가단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성실하게 작성



공약 추진상황 보고



공약이행주민평가단 의견 제시